

朝鮮日報

2018년 12월 21일
27면 (인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20일 세계경제연구원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냈다. 지난 25년간 이사장을 맡아온 사공일 전 재무장관은 명예 이사장으로 활동한다.



(5.6*5.0)cm

중앙일보

2018년 12월 21일
16면 (종합)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신임 이사장 선임

세계경제연구원은 신임 이사장으로 전광우(사진) 전 금융위원장이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하며 정해진 임기는 없다. 전 신임 이사장은 금융위원장, 국제금융대사 등을 역임했다.



(5.6*4.0)cm

東亞日報

2018년 12월 21일
25면 (인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광우씨

세계경제연구원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69·사진)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신임 이사장 취임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전 신임 이사장은 금융위원장,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세계경제연구원을 설립한 뒤 25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아온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내년부터 명예 이사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6.9*6.6)cm

전광우 前금융위원장 세계경제研 이사장에

내년초 세계경제전망 포럼 개최

세계경제연구원이 새 이사장으로 전광우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세계경제연구원은 세계 석학과 지도자를 초청해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취지로 1993년 설립된 민간 비영리법인이다.

전광우 신임 이사장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금융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제금융 대사 등을 지냈다.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하며, 정해진 임기는 없다.

전 신임 이사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그동안 세계경제연구원이 거시경제 중심의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 이슈에서도 앞서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자신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국제금융 분야에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포럼을 기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 신임 이



사장은 “한국 경제계나 금융계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글로벌 리더들을 초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젊은 청년들이 해외 경제 흐름을 보다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경제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난 25년 동안 연구원을 이끌었던 사공일 이사장은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세계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여러 리더와 안목을 공유할 필요가 높아지는 때에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씨가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경제연구원은 내년 1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앨런 시나이 전 리먼브러더스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초청해 ‘2019 세계 경제 및 금융: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호황을 유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 예정이다. 손일선 기자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맡은 전광우 前 금융위원장

“해외 인맥 활용해 국제 협력사업 확대할 것”

“세계 시장의 흐름을 알고 통찰력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글로벌 리더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겁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사진)이 20일 세계경제연구원(IGE) 새 이사장에 선임됐다. 세계경제연구원은 세계 석학 및 지도자를 초청해 글로벌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1993년 설립된 민간 비영리법인이다. 설립자인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이 이사장을 맡아 이끌어왔다.

전 이사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리더들과 만나는 교류의 장으로서 연구원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이 국제 전문가와 직접 만나 소통하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는 통찰력을 키우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연구원의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쌓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국제금융대사, 금융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거치면서 주요국 경제·정치 분야 전문가들과 폭넓은 교류를 해왔다.

이런 점 때문에 사공 전 이사장이 수년 전부터 전 이사장에게 연구원 합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공 전 이사장



세계은행, 국제금융대사 등 거처며
주요국 전문가들과 폭넓은 교류 쌓아

“국내 리더·국제 전문가 소통 늘려
세계 경제 통찰력 주는 플랫폼으로”

은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두 사람은 전 이사장이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있던 1980년대 후반 재무부 관료이던 사공 전 이사장이 미국 워싱턴 DC 파견근무를 하면서 알게 돼 40년 가까이 친분을 쌓아왔다.

전 이사장은 “금융과 4차 산업 분야 등으로 연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연구원은 글로벌 전문가들을 초빙해 IGE 글로벌강연포럼을 하고 외국 학회 및 재단 등과 국제회의, 국제 협력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주로 거시경제와 통상 이슈 등을 다뤘다. 올해는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 마틴 펠드스테인 미 하버드대 교수 등이 포럼 강연자로 나섰다.

전 이사장은 “핀테크(금융기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의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고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과 투자 분야의 글로벌 빅샷(거물)들을 초빙하는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전문가들과 접점을 확대해나갈 것”고 덧붙였다.

그는 “잭 웰치 전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은 ‘진정한 글로벌화는 전화나 이메일로 가능하지 않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리더들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세계경제연구원이 이런 소통 기회를 많이 만들어 국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봉 기자 kgb@hankyung.com

“4차혁명시대 글로벌 핵심 이슈 국민적 이해도 제고 기여할 것”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경제 이슈가 복잡적이고 서로 연계되는데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체제가 바뀌며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글로벌 리더들을 초청해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전광우(사진) 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세계경제연구원은 이날 새 이사장으로 전 전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자로 취임할 예정이며 정해진 임기는 없다.

세계경제연구원은 직접적인 연구원이 많지는 않지만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 20~3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으며 좋은 주제를 선정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럼을 개최해 좋은 정보지식을 확산시켜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전 선임 이사장은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금융 대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경제신문 정기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원 설립자이자 25년간 이사장을 맡아온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세계경제연구원은 “사공 이사

장이 젊은 리더에게 연구원을 맡길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여러 리더와 안목을 공유할 필요가 높아지는 때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씨가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전 이사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듣고 고사해오다 의미도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이 필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게 돼 맡게 됐다”며 “기업이든 국민이든 언론을 통해서든 우리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향에 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거시경제·안보를 많이 다뤘지만 4차 산업 등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이고 경제 이슈가 복잡적이고 서로 연계돼 있어 국제금융, 인공지능(AI) 등으로 커버리지를 넓히며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aily.com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광우 전 금융
위원장이 세계경
제연구원 이사장
으로 20일 선임됐
다. 전 신임 이사장
은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금융 대사 등을
지냈다.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하며 정
해진 임기는 없다. 연구원 설립자이자
25년간 이사장을 한 사공일 전 재무
장관은 명예 이사장으로 활동한다.

세계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패
러다임이 변화하고 여러 리더와 안목
을 공유할 필요가 높아지는 때에 국
제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 전
위원장이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문호진 기자/mhj@heraldcorp.com

(5.3*11.3)cm